

6. 15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 통일을 앞당기자!

공화국의 존엄과 제도, 인민을 감히 해치려드는자들은 천백배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성명

보도된바와 같이 얼마전 피뢰패당에게 유인, 랍치되어 남조선에 끌려갔다가 공화국으로 돌아온 박정숙녀성과 미국과 피뢰패국의 조종밑에 우리의 최고존엄의 상징인 동상과 기념비를 파괴하려고 기여들었다가 체포된 월남도주자 전영철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들을 통하여 미국과 피뢰패당의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와 특대형체로행위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금 우리 근대와 인민, 온 민족은 미국과 피뢰패국의 특대형범죄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우려와 경악을 표시하고있다.

미국과 피뢰패당의 특대형체로행위는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극악무도한 도전이고 공화국주권에 대한 잔혹한 침범이며 국제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다.

이것은 적대세력의 반공화국모략과 파괴, 전복음모가 매우 위험한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번 사건들을 통하여 미국과 피뢰패당이 떠들어대고있는 《탈북자》나, 《북인권》이니 하는것들이 순전히 위선이며 진짜 목적은 우리의 일심단결을 해치고 우리 제도를

전복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히 입증되었다.

세계의 면전에서 저들의 범죄행위가 폭로되는데 바빠맞은 미국과 피뢰패당은 《적대의사가 없다.》느니, 《개별적소행》이니, 《북의 일방적인 비방선동》이니 하는 첩면피화개변을 제치며 여론을 오도해보려고 하고있으며 지어 사건관련자들을 살해, 제거하는 비열한 방법으로 이번 사태를 덮어버리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피뢰패당이 저지른 반인륜적죄악과 특대형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감출수 없으며 무마시킬수도 없다.

더우기 이번 특대형체로행음이 미국과 피뢰패당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범죄라는 사실이 날로 명백히 드러나고있다.

피뢰패당이 반공화국과파괴행위 등에 얼마나 피눈이 되어 매달리고 있는가 하는것은 최근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었다가 남조선으로 강제추방된 극악한 민족반역자 김영환놈의 범행에서도 다시금 확인되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피뢰패당이 말로 반인권법죄의 왕초이며 랍치와 테로의 원흉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과 피뢰패당이 국제법을 랍복하게 유린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유인, 랍치하고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특대형체로행위까지 기도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공화국의 법과 인권 및 반테러에 관한 국제적협약에 따라 그에 대응한 모든 조치를 취할 합법적권리를 가지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미국과 남조선피뢰패당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겨냥한 특대형국가정체로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책임있는 주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추악한 반역자무리인 《북민전》과 《동까모》를 비롯한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즉시 해체하며 인간쓰레기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범죄행위에 내모는 비열하고 무모한 놈들을 경여치워야 한다.

2.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특대형체로를 비롯한 반공화국과파괴음모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 랍치행위에 가담한 범죄자들에게 단단을 비롯한 상응한 조치들이 뒤따르게 될것이다.

처단대상에는 이번 특대형체로행

위의 주도자인 《자유북한방송》 대표 김성민놈과 랍치와 테로, 모략에 미쳐날뛰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전 피뢰패통일교육원 원장 조명철, 추악한 변절자 김영환도 포함될것이라는것을 선포한다.

3.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하고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침해하며 우리 주민들의 신권을 위협하는 랍치, 테로, 파괴음해범죄를 다 뒤져서라도 절대로 가만놔두지 않을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피뢰패당이 지게 될것이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결사옹위하고 우리 공화국의 주권과 우리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것은 우리의 신성하고도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의 최고존엄과 제도, 인민을 감히 해치려드는자들은 그 어디에 있던 무사치 못할것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

위대한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천만군민의 철혈같은 일심단결을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미국과 리명박죄수무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주제101(2012)년 7월 31일
평양

시체가 되어서도 파괴음해행위를 해볼려면 해봐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모독한 미국과 리명박익당의 특대형체로행위는 지금 천만군민의 심장을 치솟는 분노와 복수의 열적지로 끓게 하고있다.

특히 자기를 키워주고 배워주고 내세워준 은혜로운 품을 배반하고 혈통다 못해 치명리는 대죄악을 앞장서 감행한 천하의 인간쓰레기이며 민족의 극악한 변절자, 반역자들인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전 《통일교육원원장》 조명철놈들을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라는 증오의 목소리들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터져나오고있다.

하지만 이 추악한 반역의 무리들은 저지른 대죄악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대신 오히려 독을 품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테로, 랍치, 베라살포와 같은 파괴음해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발악하고있다

고 한다.

이놈들이 공화국과 끝까지 해보겠다는것은 결국 미국과 리명박익당의 《흡수통일》 야망을 한사코 추종하겠다는것이며 민족을 끄적한 전쟁의 참화와 고통의 소용돌이속에 밀어넣는 대결모략책동을 계속하겠다는것이구나 다름이 없다.

만약 이자들을 그대로 살려둔다면 북남관계는 앞으로 더욱 악화되고 이 땅에는 대결과 적대감만이 차고 넘쳐며 끝내는 전쟁의 끄적한 참화가 펼쳐지게 될것이 명백하다.

한중도 못되는 민족의 반역자, 인간쓰레기들때문에 공화국의 최고존엄이 모독당하고 민족의 아름다운 문리와 도덕이 유린당하며 아름다운 삼천리가 어지러워지는것을 똑똑히 알고나 뉘저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삼

없다.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민족반역자이며 더러운 변절자, 인륜을 거역한 인간쓰레기들을 결단코 용서치 말아야 한다.

김성민, 박상학, 조명철 등 미친개무리가 하늘이 무서운줄 모르고 최후발악을 하고있지만 차레질것은 처참한 죽음밖에 없다.

무덤하게도 태양에 주먹질한 역적무리들을 그냥 살려둘수 없다.

민족의 분노와 징벌의 경고에 감히 엇서나가며 반복 파괴음해행위를 끝까지 벌리겠다는 놈들은 베라를 더 뿌리기도 전에 시궁창에 나딩구는 시체가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나 뉘저러.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부장 김경삼

반인권범죄자가 《인권》다령?

얼마전 밖에까지 나가서 공화국의 주민들을 유인랍치하는 대결모략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다가 중국의 공안기관에 체포되었던 김영환이 남조선으로 쫓겨돌아가 그 무슨 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여기서 이자는 자기에 대한 체포가 《북당국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느니 뉘니 하며 횡설수설하였으며 나중에는 《북(인권)을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활동할것》이라고 악당질을 하였다.

천하의 배신자, 변절자인 김영환만이 내뱉을수 있는 망발이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김영환이 이 나라에 기여들어 한것이란 《인권활동가》의 허울을 쓰고 공화국의 요인들에 대한 유인랍치와 공화국내부에 대한 파괴음해책동과 같은 국가테로범죄행위였다. 이는 해당나라의 법은 물론 국제법까지 랍복하게 유린한 특대형범죄로서 어느 나라에서도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이다. 결국 이자는 그 나라의 공안기관에 체포되어 100여일동안이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여기서 드러난 엄청난 범죄자료들로 하여 국제적인 물의까지 일으키게 되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영환이 《인권》의 랍을 쓰고 저지른 죄과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반성할때를 기대를 합리화해보려고 오그랑수 쓰는 그대 나중에는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에 더욱 광분할의

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았으니 이자야말로 동족적대감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특등대결광신자가 아닐수 없다.

원래 김영환으로 말하면 한때 남조선에서 자주를 력살하고 반미도 웨쳐보았으며 민주화에 대해서도 떠들던 자이다. 그런데 감옥에 끌려가 매를 몇대 맞고는 신념과 의지도 다 웨버리고 변절하였으며 끝내는 미국과 남조선국우보수패당의 반공화국범죄행위의 돌격대로 전락되었다. 최근년간에는 남조선당도 부족하지 다른 나라에까지 기여들어 공화국주민들에 대한 유인과 랍치, 주요대상들에 대한 파괴음해 등 반공화국체로행위를 감행하여왔다.

이러한 사실들은 김영환이야말로 추악한 변절자, 더러운 민족반역자, 천하에 돌도 없는 악랄한 대결광신자, 극히 위험한 테로범죄자라는것을 말해준다.

미친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반공화국돌격대로 충실히 복무한 대가로 자기의 너절한 목숨을 미국과 리명박보수집권세력이 보호해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타산은 없다.

력사는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을 앞장서 부추기며 갖은 못된것을 일삼는 김영환과 같은 인간쓰레기, 악질민족반역자에게 반드시 준엄한 징벌을 안길것이다.

박철남

있다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지금 미국과 역적패당이 남조선이 발간된 특대형범죄행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수 있는 지들에게는 그런 테로를 조직한 기관도, 그런 지령을 내린 사람도 없다느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리명박패당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미국과 역적패당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을 불을 단다던 그 불에 타죽을것은 바로 호전광들자신이다.

미련한 개도 하루를 먹여살려준 은인은 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세상에는 미련한 개보다 못한자들도 있다.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고마운 품을 배반하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탈북자》들이 바로 그러하다.

폭로된바와 같이 공화국을 배반하고 남으로 도주한 《탈북자》들이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지지와 보호속에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무어가지고 동족을 반대하는 모략소동을 벌리다 못해 이번엔 드러난 특대형사건과 같이 존엄을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모해하려는 파괴음해행위에 서슴없이 나서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는 적대세력의 준동에 대처하여 최대의 격동태세를 갖추고 있다.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군대와 인민이 있고 한계를 모르는 무진막강한 군력이 공화국을 지켜서 있어 도발자들은 무고존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과 역적패당은 만약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훼손시키려는 그그마한 경우 그것은 곧 서울의 불바다로 번져지게 될 최후성전의 시작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계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반역자에게는 수치와 죽음만이

더럽기 그지없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몇푼의 돈에 유혹되어 공화국의 최고존엄까지 해치려는 인간의 체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간오작품들의 특대형파괴음해책동에 지금 공화국의 전체군대와 인민은 분노와 증오심을 금치 못하고있다.

그렇지 않아도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리명박반역 《정권》의 특대형반공화국도발소동에 격앙태도로 격앙되어있다.

여기에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까지 끼여들어 북의 최고존엄을 어찌보겠다고 하니 더욱더 참을수 없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그러나 민족반역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다. 남조선의 출판언론기관들의 자료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지금 자기의 보급자리를 배반하고 남으로 간 사람들을 끄적한 생활난에 시달리고있다. 공화국의 체제하에서 살았다고 하여, 생활상 습성에



미국과 리명박익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열적의 의지로 가슴불태우고있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들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7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 리명박익적패당의 국가정체로에 강한 물리적대응공세로 맞설것이라는것을 천명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전대미문의 특대형테로전을 획책한 미국과 역적패당의 대죄악에 대한 전민족적성전의 준엄한 선포이다.

만천하에 폭로된바와 같이 이번 특대범죄의 주범은 다름아닌 미국과 리명박익당이다.

불의적인 테러로 공화국경내에서 파괴와 소요, 혼

란을 조장하고 그 누구의 《내부작간》인듯이 여론을 오도하여 존엄을 공화국의 위상과 체제를 흔들고 《금번사태》로 위장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것이 미국과 그 특등주자인 리명박패당의 비열한 음모이다.

이번엔 드러난 공화국의 최고존엄의 상징들에 대한 로발적인 파괴시도는 공화국을 노린 미국의 국가정체로가 이미 로발적인 시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그 돌격대로 리명박익적패당이 서

니 뉘니 하는파위의 《사실무근》설을 내뉘리며 죄악을 감추어보려 하고있다. 한편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전개하고 이른바 《북금번사태》에 대비하여 세워진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30》, 《신련합작전 계획 5012》, 《작전계획 5029》 등에 기초한 침략전쟁연습들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현실은 당장이라도 이 땅에서 침략전쟁의 총포성이 울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

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리명박패당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미국과 역적패당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화선을 불을 단다던 그 불에 타죽을것은 바로 호전광들자신이다.

본사기자

다스니, 살길을 열어준다느니 하는 것은 감언리설로 그들을 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것처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던자도 따지고보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일확천금의 개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모략기관들의 꼬임에 빠져, 살길을 찾는다느니 미명하에 남쪽으로 간 사람들의 대다수가 《탈북자》의 감투를 쓰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앞날에 대한 비판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가하면 탈남하여 타국에서 정처없이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탈북자》들의 자살건수는 남조선주민들의 평균 자살수치를 몇배로 룡가하며 탈남한 《탈북자》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 이것도 극히 축소된 자료로서 실제 《탈북자》들의 생활수준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이로부터 지금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기관들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얻어준

다스니, 살길을 열어준다느니 하는 것은 감언리설로 그들을 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것처럼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던자도 따지고보면 구차한 목숨을 유지하고 일확천금의 개꿈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남조선모략기관들의 꼬임에 빠져, 살길을 찾는다느니 미명하에 남쪽으로 간 사람들의 대다수가 《탈북자》의 감투를 쓰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앞날에 대한 비판과 절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그런가하면 탈남하여 타국에서 정처없이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탈북자》들의 자살건수는 남조선주민들의 평균 자살수치를 몇배로 룡가하며 탈남한 《탈북자》도 헤아릴수 없이 많다고 한다. 이것도 극히 축소된 자료로서 실제 《탈북자》들의 생활수준은 비참하기 그지없다.

이로부터 지금 미국과 남조선의 모략기관들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얻어준